

리버데일 한의원

한 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 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urant
445 Grand Ave
Palisads Park, NJ 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 (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뉴욕정비 (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 Pl. 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 (Francisco)
영희 (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 300 맨하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 (스테판노) 자과

뉴욕비자 자과대학과 졸업
임플란트 (시립병원 앞)
(718) 426-4343, (주지안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 American Landing

부동산 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i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 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 카메라 / 인터넷
전화 설치 / 수리
이종석 (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 (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 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 파크 (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 보고
면 회사 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 961-4024(2)

광고모집

제 1672호

2011.7.24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마태오 13, 44 - 52)

주임 신부 : 남 시몬 (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 (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 (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 (본미사), 12시 30분 (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 (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ㄹ 입당송

(시편 68(67),6-7.36)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
한 집에 살게 하시고, 당신 백성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네.
<대영광송>

ㄹ 제1독서 (너는 분별력을 청하였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3,5-6.7.7-12)

그 무렵 5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
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7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시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8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9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10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97-1))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1.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2.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
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3.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4.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 ●

ㄹ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28-30)

형제 여러분, 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
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30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천부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ㄹ 복 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44-52<또는 13,44-46>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44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48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49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51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5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공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 영성채송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7/24 8시	이 윤형	한 성천	한 회자	이 연경
11시	이 회양	엄 정환	추 인숙	김 혜란
7/31 8시	이 상식	윤 광석	윤 기애	이 상자
11시	김 철	한 광희	한 소은	손 대심

복 사 : 김 현우 & 김 현민 이 종재 & 안 정훈
 봉헌자 : 정순조&손달구 가족 다음주 : 윤구식&주성문 가족
 헌금봉사 : 황금궁전 Pr 다음주 : 다윗의 탑 Pr
 운전봉사 : 박 지현 다음주 : 방 문덕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김마르시아[지현]아기출산(생미사) : 김리디아[총자] 봉헌
 손다니엘[지원](생미사) : 조로물로[강희], 추카타리나[인숙] 가족봉헌
 최카타리나[연월](생미사) : 조로물로[강희], 최아가다 가족봉헌
 조정민, 조복식(생미사) : 정사무엘[성서] 가족봉헌
 최토마스 건강회복 기원(생미사) : 최아가다 봉헌
 권어거스틴 히야친다& Faith(생미사) : 최아가다 봉헌
 함버나드[봉국](생미사) : 이바오로[동수] 봉헌
 이바오로[재웅](생미사) : 이바오로[동수] 봉헌
 이마가렛[명숙](병자미사) : 김알베르트[재찬] 가족봉헌
 윤재식(생미사) : 공연수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이세원(연미사) : 이바오로[동수] 가족봉헌
 박안셀모[기용](연미사) : 신베드로[대철] 가족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강마리아(연미사) : 서진협 가족봉헌
 임유리안나(연미사) : 서진협 가족봉헌

성가

입당 : 주님을 찬양하라 (성가 15)
 봉헌 :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가 216)
 성제 : 천사의 양식 (성가 188)
 파견 : 어두움을 밝히소서 (성가 20)



교회 소식

(1) 새 예비자 교리시작

오늘(주일)아침부터 예비자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인도하도록 합시다.

(2) 단체장 간담회

8월7일(주일) 11시미사후 회의실에서 각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단체장들은 1년 행사 계획표를 지참하시고 간담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교구청 기금(Stewardship Appeal)

교구청기금을 아직 미납 하신 분은(교무금 1달치) 회계연도 8월말 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4) 가족이 함께 미사참여

방학을 맞아 부모님들 사이에 아이들을 함께 앉혀 미사에 참여해 주시고 댁에서는 아침, 저녁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본당 모임

- 연례회 모임이 오늘(주일) 11시 미사 후 (1시)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 꾸리아 월례회의가 오늘(주일) 11시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 제33차 남성 꾸르실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본당 간사 정우충 제임스 (917)325--0779 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여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 * 이번달(7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뉴저지 구역입니다.
- 다음달(8월)은 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금주의 본명 축일

- 7월 23일 : 성녀 로물라, 성녀 안나, 성 아폴리나리스, 성녀 요안나
24일 : 성 알리프란도, 성녀 크리스티나, 성 로마노, 성녀 루도비카
25일 : 성 마네리코, 성녀 발렌티나, 성녀 클로데신다, 성 야고보
26일 : 성녀 안나, 성 바스토르, 성 에라스토, 성 요아킴
27일 : 성녀 나탈리아, 성 에클레시오, 성녀 안투사, 성 테오발드
28일 : 성 나자리오, 성 삼손, 성 페레그리노, 성 아카치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1,523.00

감사헌금 : \$ 500.00 (송호진)

교육헌금 : \$ 3,922.00(지난주 누락 \$100 포함)

성물서적 : \$ 515.00

교무금 : \$ 620.00

이종언(7) 안장환(7-8) 송호진(완납) 황옥선(7-8)

최숙자(7) 이우용(7-8)

Stewardship Appeal : \$90.00

누계 : \$ 7,775.00

심영숙 황옥선

오늘을 잘 사는 것이...

60이 좀 넘은 한 부인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다. 자기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되고, 만사가 귀찮아서 살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병을 아는데요, 이게 화병이에요” 한다. 내가 무엇에 얼마나 화가 나서 그렇게 화병에 걸렸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젊었을 때 남편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화병이 났다고 말한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나 자신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이 분노와 슬픔으로 변한다. 남편이 술을 좋아했고, 술을 마시면 난폭해져서 식구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한다.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꺾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당시 자기가 참 바보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3 년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고 나서는 술도 끊고, 사람이 양순해졌고, 지금은 일만 열심히 한다고 대답 한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변한 남편이 고맙기는 커녕 지난날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남편이 한없이 밉고, 원망스럽다고. 또 한 노인은 70이 다 된 분으로서 종종 나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곤 하는데 주로 자기 딸 걱정이다. 그 분은 30이 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간호사인 딸과 단 둘이서 잘 살고 있다. 그렇지만, 그 분은 자기가 죽고 나면 딸이 혼자서 어떻게 살 것이냐고 걱정이 태산이다. 그분의 딸은 간호사로서 뉴욕 시내의 한 큰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무척 똑똑하고, 성실한 처녀 같다. 내가 딸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자신의 가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딸이 홀로 외롭게 살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미리 걱정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래도 자기 친 부모형제가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외롭고, 무슨 일이 닥치면 또한 얼마나 힘이 들지...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눈을 감고 죽지도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한숨을 쉰다. 위의 두 분중 한 분은 과거에 발목을 잡히고, 또 한 분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기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외로 많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해서 오늘의 삶을 감사하거나, 엔조이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물론 지난날을 잊어버릴 수는 없고, 내일을 생각 안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오늘을 제쳐놓고 과거나, 내일만을 생각한다면 내일이 되었을 때 지나간 오늘을 또 얼마나 후회하겠는가? 지난날을 거울삼아서...하는 말이 있다. 지난날은 나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서 오늘을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야되고,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마태 6, 34)하시지 않으셨는가?...

우 몽은